

[피살 충격...인질사태 새 국면]

연합군, 탈레반 소탕 강화... 협상 영향은?

하루새 75명 사살...악영향 미친 듯

탈레반 '한국과 직접협상 요구' 시점서 발생

"8명 석방할 곳서 연합군 만나 돌아가" 소문

미군 주도 연합군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여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인 인질사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은 최근 이를 새 산악지대인 아프간 남부 헬만드 주(州)에서 지상전 및 공습을 통해 탈레반 무장세력 수십명을 사살했다.

연합군은 지난 23일 헬만드 주 험준한 끝자기의 탈레반은 거리를 공격, 조직원 36명 이상을 사살한 뒤 인

근 우르즈간 주에서도 칸다하르 주와 연결된 도로를 봉쇄하고 공습을 단행해 탈레반 조직원 26명을, 칸다하르 주에서 13명을 각각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이 소탕작전을 펼친 헬만드 주 지역은 한국인 인질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된 가즈니 주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칸다하르 주는 한국인 인질들이 목격지로 삼았던 탈레반 거점지역이다.

연합군이 대대적인 탈레반 소탕작

전을 벌인 23일은 납치범들이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한국 정부와 직접협상을 요구한 시점이다.

현지로 급파된 한국 정부 인사가 이례적으로 아프간 정부 대체회의에 참여하면서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대책을 여러모로 논의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다국적군의 공

격으로 동포 탈레반 75명이 죽어가는 현실이 협상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군은 이어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야간작전을 전개해 탈레반 무장세력 50여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등 아프간 남부의 탈레반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거기다 무장세력의 '자금줄'인 헬만드 주 아편 제조지역에 대해 공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군은 12시간에 걸친 26일의 야간작전에서 헬만드 주의 탈레반은 거지 16곳을 집중 공격했고 연합군의 폭탄이 투하된 탈레반 기지 2곳에서는 저장된 폭발물이 추가로 터지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납치범이 당초 약속한 대로 인질 8명을 석방할 계획이었으나 인질을 인도로 한 장소 주변에서 연합군 병력을 목격한 뒤 인질과 함께 은거지로 되돌아갔다는 일부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으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희생자 더 없어야... 정부 믿고 따를 것"

피랍 가족, 세계 각계에 눈물의 호소문 발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한국 인질 배형규(42) 목사가 살해된 사실이 26일 오전 공식 확인된 가운데 피랍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호소문을 발표하고 애끓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는 탈레반이 최종 협상시한으로 이날 오후 5시30분을 제시했다는 아프간 이슬라mic 프레스(AIP)의 보도를 의식, 탈레반 측에 가족들의 애라는 마음을 재차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랍자 제창희씨의 누나 미숙(47) 씨가 "노무현 대통령님, 아프가니스탄 대사님, 미국의 부시 대통령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23명의 가족들입니다"로 시작되는 호소문을 읽어내려가자 현장에 있던 17명의 가족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

다.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봉사를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까?"라며 "탈레반 여러분,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해야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배형규 목사의 피살 대목에서는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고 호소문 낭독에 이어 한 사람씩 돌아가며 탈레반 무장세력에 가족들의 무사귀환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가족들은 이날 언론을 통해 피랍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랍자 가족대표 차성민(30)씨는 "현재로서 최선의 방책은 정부를 믿고 전해졌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피랍 7일째인 26일 서울 서초동 한민족복지재단에서 피랍 가족들이 조기 석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인 피랍된 아프간 남부는

군벌·지주 등 활개 '무법천지'

각종 구호단체들도 발길 끊어

기 때문.

탈레반은 권좌에서 축출된 지 만 4년째인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재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에서의 장악력이나 권위는 전성기에 크게 뜯어치고 있다.

탈레반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 많은 지역에서 군벌이나 지주들이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했는데 이들 정서적으로 탈레반과 가깝긴 하지만 조직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

칸다하르의 보건담당 책임자인 암둘 카룸 푸클라 박사는 "탈레반 시절보다 지금이 일하기가 더 힘들다"면서 "무장세력이 위나 많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교섭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어려움은 정부 관리나 보건봉사자들이 아프간 주민의 상당 부분이 살고 있는 지방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프간 보건당국이 올 초 농촌에서 새로운 면역접종 운동에 나섰는데 과거와는 달리 지역별로 탈레반이나 무장세력 지도자와 연줄이 끊는 중재자를 세워 개별 협상을 벌여야만 했을 정도였다.

아프간 남부 4개주에서 공무원이 무장차량이나 중화기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로 출입이 금지됐던 지역이 3년 전에는 전체의 26%였지만 지금은 41%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경찰, 이슬람권 외국인·시설 안전 강화

탈레반의 한국인 피랍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슬람권 외국인과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인 쉼터와 외국인 고용시설에 대해 정보·보

안·외사활동을 강화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랍 한국인 중 배형규 목사가 탈레반에 의해 살해됨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이슬람권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에 대비한 안전 활동

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주 과학기술원 내 이슬람교 임시 예배소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외국인 쉼터 등 이슬람권 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동향 파악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는 파키스탄·이란·이라크 등 6개 국가 이슬람권 외국인 126명이 거주중이며,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관련기자 cki@kwangju.co.kr

죽어서도 사랑 실천한 배형규 목사

고인 뜻 따라 시신 의료용 기증

가족들 외교부에 '시신보존' 요청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분당 삼불교회 배형규(42) 목사의 시신이 의료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된다.

배 목사의 가족은 아프간에서 숨진 배 목사의 시신 기증을 위해 "시신을 잘 처리해 한국으로 운송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국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목사의 형(45)은 이날 "가족들과 의논해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동생의 시신을 의료연구용으로 기증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시신의 체온을 최소한 줄이고 부드 방지와 위한 화학처리 등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배 목사는 평소 "살아서만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으며 수 년 전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기증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주변에서는 전했다. 배 목사의 시신은 국내에 운반되는 대로 경기도 안양 삼병원에 기증될 예정이다.

형 배씨는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 가족들 모두 참담하고 심정을 뛰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늦기 전에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시신 기증 절차를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8월 1일 첫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광주고시학원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2007.8.10(금) ~ 2007.8.11(토)
- 모집기간 : 7. 9(월) ~ 8. 10(금)
- 수업기간 : 2007.8.10 ~ 11.16(4개월/15주)
- 수강료 : 250,000

■ 모집인원: 1단계 주증/주말반 각20명(선착순)

■ 수업시간 : (매주 금, 토) 09:10~14:30(5강조)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TEL (082) 950-3584, 3585, HP.011-614-4160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12개월~토
- ▶주택관리사 12개월~토
- ▶주택관리사 2개월(개별) 주말반토익

• 모집대상

- ▶훈련료 중 모든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전실적 예상인 분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전 분 40세 이상이신 분
- ▶근로자기간이 1년 미하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타사항

- ▶고용보험에 가입증인 사업장에 근무증인 자자로지

• 수료후

- ▶100~80% 학급

• 접수

-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월수금 19: 00~21: 00(기초) ▶화목 19: 00~21: 00(기초)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 特報: 세무公務員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

7·9 금 공무원 특강

9급 2700명 모집 ① 9월 6일 시행(1200명 모집) (사상초유) ② 내년초(1500명 모집 예상) 대모집

全 ■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행
■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해 8월 1일 개강
■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해 8월 1일 개강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들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l.co.kr 222-4560

www.kimyoung.co.kr
그동안 김영출신 10만여명 합격

여름방학 편입 대학편입

앞선 시작, 앞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선생 대학편입 개강 8월 1일

올해도 역시! 거칠없는 합격률!!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

한국의 220개 평균, 전국에 350개 평균 합격률을 기록한 김영선생 대학편입